

세계 속 혁명 예술 중심도시, 전주로!

제1회 세계혁명예술국제포럼 개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이었고 민중 주체의 근대 혁명이었다. 전주는 동학농민군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승전지이자 집강소가 설치되었던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이후 근대역사의 중대한 장소적 가치를 갖는다. 특히, 혁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문화와 사상, 예술을 포괄하는 폭발적인 시대의 흐름인 만큼, 전주는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혁명 예술과 세계의 근대 혁명, 그 이면의 문화와 예술을 재조명하며, 새로운 혁명의 가치를 확장해가고 있다.

인식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전주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실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웅숭깊은 정신이 현재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의미가 세계적 위상에 걸맞게 정립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전주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기념하는 역사관(녹두관)을 시작으로 동학과 세계 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도서관(가칭 혁명도서관), 광장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체험·교육·관광콘텐츠가 담길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적 가치를 담은 소중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전주, 동학농민혁명 정신 품은 위대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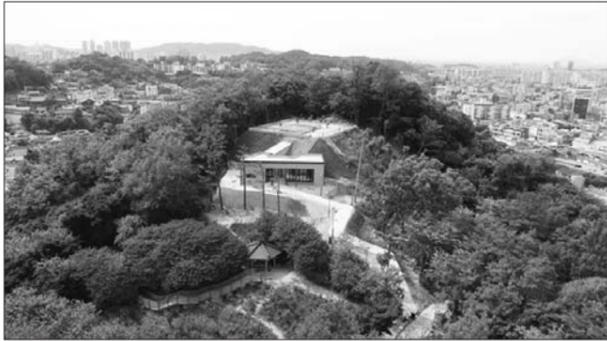
대동의 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전주에 살아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지가 전주가 아닌에도 전주가 혁명의 성지로 인식되는 것은, 집강소 설치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관·민의 협치정부 거버넌스를 꾸렸던 위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입성은 전국적으로 혁명이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전주를 한국 근대민주주의 성지로 평가한다. 용머리고개, 전라감영, 전주성 서문지, 초록바위, 안산공원은 그 자체가 동학의 정신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촛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여러 혁명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입증했으며, 한국 민주주의 뿌리이자, 아시아 민주주의의 효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일상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세계 속에서의 의미 있는 역사적 혁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기록과 세계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국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주된 연구는 역사와 사상 중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계 여러 혁명과 그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단순한 역사의 사건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서, 보다 다채롭게 접근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등 쉽게 풀어내는 혁명의 연구는 대중에게 더욱 뿌리 깊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주도 동학혁명의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학혁명 주요 연구자료 등의 외국어 번역 및 번역서 보급이다. 이러한 번역작업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고, 세계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녹두관 전경.

다. 무엇보다 전주의 감성인 문화적 역량을 집결하여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의미있는 세계 역사의 기록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혁명 예술의 중심도시, 전주

전주는 혁명과 예술을 연계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전주동학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고취시키는 제1회 세계혁명예술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동학농민혁명을 세계 근대혁명으로서 위상을 세우기 위한 노력은 국제포럼 등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주제 때문에 고유성과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그 성과가 드러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전주의 국제포럼은 다르다. 근대 혁명의 핵심에 다채롭게 접근하며 혁명 정신을 깊이 있게 담는다.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세계 근대혁명사에서 파생된 예술적 성취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전주형 국제포럼이다. 동학농민혁명과 세계 근대혁명의 문학, 미술, 영화, 음악, 무용 등 각 장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년 하나의 장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일종의 '혁명 예술 포럼' 방식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음악회, 시낭송회, 영화제 등과 연계하여 문화적으로 발전시켜 학술포럼과 예술제를 겸한 것이다.

전주형 국제포럼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세계의 혁명문화

와 예술의 중심도시로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연계하는 것이다. 결국 전주를 '혁명 예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차별성을 갖고, 세계 각국의 혁명 예술가들과 함께 전주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다시 조명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세계혁명예술국제포럼은 지난 21~22일 이틀에 걸쳐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세계의 혁명문화와 영화를 주제로 함께 했으며, 첫째날은 각국의 혁명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연구자와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포럼이 열렸고,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인 22일까지 혁명 영화를 주제로 해설이 있는 영화가 상영됐다.

이번이 끝이 아니다. 소설과 시, 그림과 화가, 노래와 음악, 영화와 작가 등 혁명과 연계시킬 주제는 다양하다. 앞으로 계속될 전주형 국제포럼은 전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 문화예술로 승화되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뒤흔든 동학농민혁명을 세계화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혁명예술'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제포럼을 통해 전주가 혁명예술의 중심도시이자 동학농민혁명을 세계화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피력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지방의회에 조직구성·예산편성 권한 넘겨야”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주시의회)이 지난 21일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권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다. 강 협의회장은 이날 시·군의회별 현안 논의와 의견 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인 정읍시의회와 완주군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규정은 신설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 의회의 뜻을 반영해 조직구성권과 예산권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은 과거 자치단체장에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게 대한 인사권한을 의장으로 이관했지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상 기자



35개 동 '우리동네 법무사' 무료 법률 상담

전주시·전주시의회·전북지방법무사회, 업무협약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전북지방법무사회와 손을 맞잡고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회장, 박경수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전주시부장은 지난 21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민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법무사회는 전주시 35개 동에 120여 명의 '우리동네 법무사'를 배정해 시민들이 실

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을 법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와 시의회는 전북지방법무사회의 원활한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민과의 가고 역할을 수행하며 원활한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활법률지원단은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맡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설 연휴 기간 청소대책상황실 운영

전주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청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청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처럼 일제 대청소는 실시하지 못하지만 24일

부터 28일까지를 설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해 동별 청소 취약지를 중심으로 대청소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청소민원 해결을 위해 청소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육기동처리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영화의 거리, 터미널 등 유동인구와 방문객이 많은 10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연휴 기간 가로청소 실시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30일과 2월 1~2일에는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수거 일정을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조미영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설 명절 기간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 최소화과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